



하이닉스
1분기 깜짝실적
HBM 양산 속도
03



Life

빈대인 회장
장기전략으로
'주류금융' 선도
L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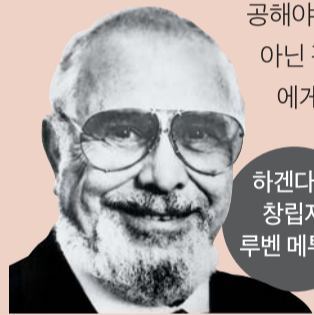


달콤한 한입의 행복 단순한 디저트 넘어 특별한 미식경험을

아이스크림이 인류에게 사랑받아 온 역사는 그리 짧지 않다. 아이스크림의 기원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눈에 장미수를 섞어 과일을 얹어 먹었던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 알렉산더 대왕이 눈에 우유와 꿀을 섞어 먹은 것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히포크라테스도 아이스크림을 '생명수'라고 부르며 극찬했다고 한다. 최근 아이스크림은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기호식품으로 자리잡았다. 보통 우울감을 극복해 행복한 감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혹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구매한다.

이러한 아이스크림의 본질을 일찍이 파악한 사람이 있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하겐다즈의 창립자 '루벤 메투스'다.

그는 아이스크림이란 단순히 차갑고 달콤한 디저트를 넘어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며, 아이스크림을 단순히 디저트가 아닌 감정과 경험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물론 사람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려면 제품 자체, 즉 품질의 기반이 근본적으로 다져져야 하므로, 루벤은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만들겠다는 일념 하에 1961년 하겐다즈를 설립했다.



하겐다즈
창립자
루벤 메투스



하겐다즈 기본 플레이버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하겐다즈

“하겐다즈를 경험하고 나면 다른 아이스크림은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창립자인 루벤 메투스의 원대한 포부로 시작된 하겐다즈는 순수한 기본 원재료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기본 플레이버 바닐라, 초콜릿, 커피 아이스크림을 창립과 함께 처음으로 선보였다. 합성 색소나 합성 향료 없이, 높은 유지방 함량으로 존독한 식감과 재료 본연의 깊은 맛을 구현해낸 점이 특징이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찾아낸 엄선된 원재료만으로 최고 품질의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것은 현재까지도 하겐다즈의 일관된 비전이 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하겐다즈는 아이스크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 제품을 함께 선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글로벌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성장, 독보적인 왕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1961년 하겐다즈 창립한 '루벤 메투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제조 포부 담아 순수한 원재료 사용해 본연의 맛 살려 극강의 부드러움·깊은 풍미로 입소문

◆'60년을 한결같이' 바닐라 아이스크림

하겐다즈의 No. 1 플레이버는 단연코 바닐라다. 하겐다즈의 바닐라 아이스크림에서는 그 어느 아이스크림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깊고 풍부한 바닐라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하겐다즈 바닐라는 합성 색소 및 합성 향료 없이 오직 5가지 순수한 원재료만으로 만들어져 바닐라 본연 그대로의 맛을 가장 궁극적으로 구현해낸다. 고품질의 크림, 우유, 설탕, 신선한 달걀(난황)만을 베이스로 사용하고, 프리미엄급 버번 바닐라 추출향을 더해 완성한다. 이 외에 부수적인 재료나 합성 향료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깊고 부드러운 재료 본연의 맛을 자랑한다.

기준에 맞볼 수 없던 극강의 깊고 부드러운 풍미로 입소문을 탄 하겐다즈는 1976년 뉴욕 브루클린에 하겐다즈 샵 1호점을 내면서 본격적인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매장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미국 전역과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800여 개의 매장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1년 판매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전국에 총 7개 하겐다즈 매장을 운영 중이다. 전국 편의점 및 대형마트 등에서도 하겐다즈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최고의 디저트 경험 선사 위한 노력

하겐다즈는 바닐라맛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플레이버를 개발하고 다양한 소비자 접점을 만들어내는 등 혁신적인 아이스크림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하이엔드 5성급 호텔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과 함께 '그린티 초콜릿 포레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시즌 한정으로 출시했으며, 스타벅스와 함께 감사의 달 시즌 한정 아이스크림 케이크 출시하는 등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협업하고 있다.



5가지 순수한 원재료만으로 만들어진 하겐다즈 바닐라 아이스크림.



하겐다즈는 감사의 달을 맞아 스타벅스와 시즌 한정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출시했다. /하겐다즈

'품질·혁신' 가치 추구 위해 개발 노력 프리미엄 브랜드와 협업, 케이크 출시 세계적 파티셰와 새로운 플레이버 개발 소비자에 최고의 아이스크림 선보일 것

또한, 새로운 플레이버 개발과 출시에도 열을 올린다. 지난 2023년 세계적인 파티셰 피에르 에르메와 글로벌 파티셰를 맺고, 스트로베리&라즈베리, 더블 초콜릿 가나슈, 레몬&유자 등 마카롱 아이스크림 3종을 출시한 바 있으며, 4월에는 봄을 맞이해 시그니처 플레이버인 바닐라에 봄을 연상시키는 라벤더 톤의 블루베리 마카롱을 조합한 신제품을 추가로 출시했다.

현대 마카롱 '원조'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의 만남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으며, 출시 제품 중 스트로베리&라즈베리와 더블 초콜릿 가나슈는 하겐다즈 역사상 신제품 최고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겐다즈 마케팅 관계자는 "60년이 넘는 시간동안 전 세계 50개국에서 사랑받아온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하겐다즈는 창립자의 장인 정신 아래 '품질'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추구하며 소비자에게 최고의 아이스크림을 선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디저트 퀄리티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플레이버 혁신부터 소비자 접점 확대까지, 보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최정 통산 홈런 신기록에 MLB닷컴 "KBO 홈런왕 탄생"
▲김하성, 이틀 연속 멀티히트 콜로라도 전 2타점 결승타 /사진 뉴시스

▲'슈퍼팀' KCC vs '첫 우승' kt...이구 동성 '트로피는 우리 것'
▲보름 신 손흥민, 28일 아스널과 북런던더비서 EPL 10-10 재도전



▲인니축구협회장 "신태용 감독과 2027년까지 재계약 합의" /사진 뉴시스
▲셰이크 살만 AFC 회장 방한...축구협회와 시상식 개최 등 논의